

# 建築도 빛나면서 都市도 살아나고

元 正 洙 / 인하대학교 교수

## 서 론

항간에서 Bulldozer 라는 용어를 말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을 칭하는 형용사로 통한다.

그래서 한때 “불도저” 성품의 체질을 갖춘 사람이면 출세는 물론이고 축재하는 데도 성공률이 가장 높은 이상적 한국형으로 꼽히던 시절이 있었다고 회상된다.

그러한 귀한 인재들의 힘을 입어 건물을 더 지을 터마저 모자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냈으며 급기야는 우리 한반도가 무작정 넓은 땅덩어리가 아니었음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평소, 도판을 마주하면 잡념이 가로 막고 길거리로 가다보면 의문이 떠오르는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점점이 늘어놓는다.

## 지금 서울은

곧 천만명이란 인구가 넘쳐흐를 세계 굴지의 도시로서 5 백년이란 오랜 역사를 안고 있지만 실제로는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잿더미가 되었던 당시를 돌이켜 본다면 오늘의 서울은 불과 30년 동안에 되살아난 놀라운 성장의 도시이다.

도시의 모습이 탄 판으로 변한다든가 아니면 크기가 엄청나게 불어난다든가 하는 변화하는 시간·척도에 있어서 가속되는 강도가 높아 졌다.

그렇다고 그것이 곧 발전성장이라고만 볼 수만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새 각광을 받는 유전공학 이론과 같이 급성장하는 양성적 개념과, 다른 한편으로는 음성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암세포가 무섭게 퍼트리지는 팽창 현상처럼 긍정과 부정적 시간적 변화의 빠른 변화의 역사적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라이트형제가 만든 어설픈 비행기가 땅에서 간신히 떠 오르지 1 세기도 채 못된 지금, 우주Station이 구체화 되고 있다가, 불과 몇년 동안에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 도시가 생겨 나는 것을 신기하게 느껴야 하는 것을 거의 모두가 알고 있다.

서울이란, 아무리 가혹한 변화가 몰아치더라도, 숙명적으로 변할 수 없는 “서울”이 될 수 밖에 없는 두 가지 특성을 안고 있다.

하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둘러 싸여 있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한국전통이 오랜동안 담긴 古都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점이다.

서울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自然地勢는 언제나 환경의 主調이며 건물은 이에 종속하는 부분에 불과했으므로 도입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균형잡힌 그리고 성숙함을 유지하여 주고 있었다.

뉴욕·시카고·도쿄 등은 선진국의 도시라 할지라도 지평선으로 펼쳐진 벌판에 자리한 자연환경 조건으로 건물만 들어찬 都市像만으로서는 계속 늘어가는 인구와 도시성장으로 형태의 나무림을 갖을 수 없는 변두리의 변화는 마치 영양이 고르지 못한 기형적 성인을 보듯이 항상 미완성되고 어수선히 느끼게 해 준다.

우리는 비록 초라한 한옥이지만 감나무라도 옆에 곁들이면 더 이상 그 지없이 사람의 마음을 가라 앉혀 주는 한쪽의 그림을 보듯이 자연의 혜택이 더 없이 크다는 것을 느낀다.

또한 옛부터 서울長安이란 곳은 납작한 단층 기와 또는 초가가 길가에 줄지어 나란히 붙어 길거리를 형성하는 옛 도성의 모습이였다.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의 건축가 Camillo Sitte 는 유럽 古都들도 대부분 도로 양편에 건물들이 비좁게 줄지어 마치 복도와 같은 가로망으로 짜여진 도시들인데, 그는 건물 높이가 길거리를 비좁게 느끼게 하는 점에 흥미를 갖고, 도로 폭과 건물 높이가 가장 이상적으로 균형되어 사람들이 불편없고 안정된 느낌을 느끼는 비례에 대한 연구를 하였었다.

그에 따르면 유럽 중세도시는 도로 폭에 비해 양측 건물 높이는 두배 높이가 되어 있고 “르네상스”시대의 도시는 도로 폭과 건물 높이는 1 : 1의 균형으로서 중세기 도시보다 넓게, 이상적으로 변하여 졌으며 “바로크” 시대에 와서는 도로 폭이 건물 높이의 두배로 넓혀진 변천을 보여 주어 양측에 즐비한 건물 사이를 거니는 길거리의 공간이 옛보다 훨씬 더 인간에게 밝고 쾌적함을 주는 공동사회 도시공간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했다.

서울도 이와 다를 바 없는 옛도시 그대로 였으나 근래와서 새로운 자동차 교통체계 관리의 어려움을 미처 감당하지 못하여 중병에 빠지게 되었

고 또한 現代都市像의 주역인 사무소 건축이 대형화·고층화의 추세에 따라 단독, 塔狀형식의 고층 건물이 군집한 서울 도심의 얼굴로 변해가고 있다.

“르 꼬르뷔제”가 20세기 초에 주장했던 理想都市像 중의 하나가 뒤늦게 서울 古都에 전염·성장되었다는 인상이다.

소위 넓은 대지를 확보한 대형빌딩들은 건물 주변에 녹지조경과 주차장으로 둘러 배치하여 지나가는 시민에게 쾌적한 시각적 느낌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접근을 꺼리는 환경으로 변해가는 양상이 짙다.

### 서울의 사무소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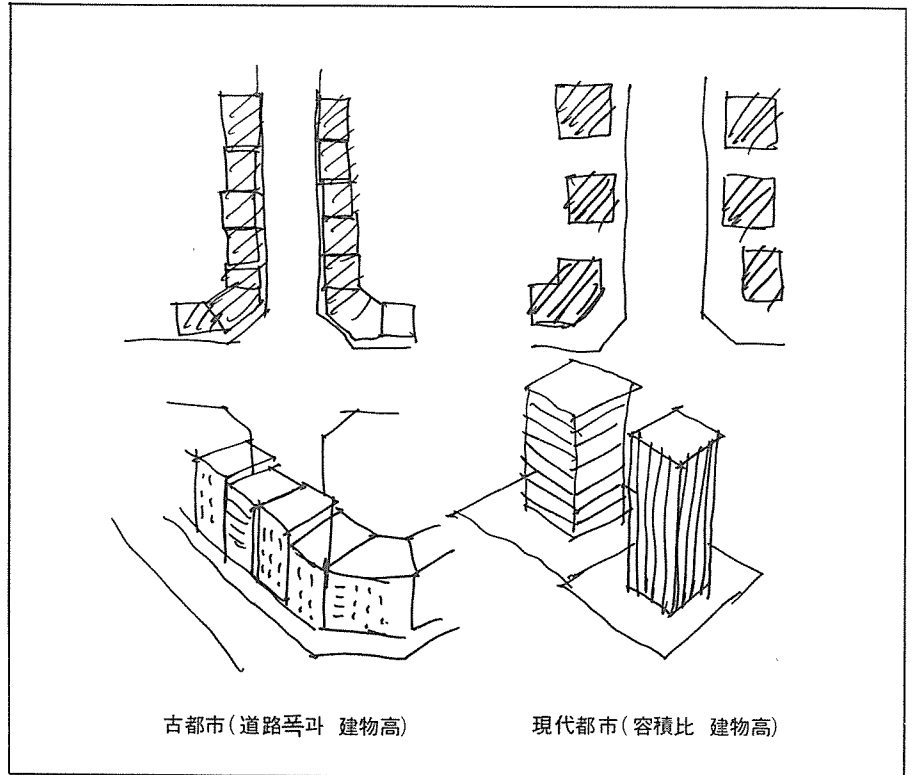
6·25동란이 휴전되자 피난갔던 서울 시민이 다시 모여들 때, 당시 황량한 잿더미 벌판으로 변해버린 옛 변화가의 모습을 바라보던 건축가들은 수심과 슬픔도 컸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멋진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과 희망 또한 컸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건축가들의 기량도 높아지고 세대도 바뀌어가고 건축의 사조 또한 새로운 경향으로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동안 크게 두드러졌던 과정을 되새겨 보면 5·16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이 천승씨, 김 정수씨 두분이 주동이 된 종합건축연구소의 작품활동이 그 중 두드러지게 컸다고 본다.

일단 시각적 조형상의 主調는 국제주의의 경향이 짙었으나 현상설계 작품의 경우는 대체로 상징성의 조형구성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그의 예 가운데 하나로 서울 수복 후 가장 컸던 설계규모의 프로젝트인 공군본부청사 당선안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그밖에 한일빌딩(퇴계로), YMCA(종로) 등은 사무소 건축에 있어서 현대 건축의 정형을 보여 주었고,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건축 작품에 작가들의 개성들이 뚜렷해지는 경향이 시작되면서 창작활동의 열기가 높아지기 시작되었다고 본다.

삼일빌딩, 도쿄호텔 작품의 김 중업씨, 오양빌딩, 세운상가 재개발 작품의 김 수근씨 두 건축가는 일반 대



중에게까지 명성이 익혀질만큼 개성 있고 새로운 조형공간이 창작될 수 있다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 건축물은 한정된 건축주를 위해 완성되지만, 두 분의 작품 가운데는 일반사회 여론에서 까지 작가의 의도 개념해석을 둘러싼 비평과 관심이 따랐으며 전통계승의 문제까지 건축계가 담당해야 할 한국 현대건축의 방향을 밝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70년도 중반은 경제도약과 더불어 대규모 고층건물 건설이 활기따자 건축설계 과정도 첨단기술, 고도의 전문화의 경향을 띠는 산업분야의 생산체제와 마찬가지로 전문화된 설계 조직 체계화 경향이 많이 보인다.

외환은행 본점설계의 정림건축, 그리고 동방빌딩, 조선일보사옥의朴春鳴건축, 한일은행본점의 원도시건축 등 대규모 사무소 건축은 본격적인 현대 고층의 Rush를 예고하고 그들의 실적은 더욱 새로운 기대와 신뢰의 업적이 되어 더욱 대규모 건축을 계획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대규모 공간의 관리, 사용의 効率化, 사무자동화 등 특수설비의 개발 등 발전으로 이 분야에 앞선 외국의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면서까지 건설되는 대규모 사무소 빌딩이 국내 설계작품과 대조를 이

루며 상당한 자극을 주게 되었다.

1970년에 이미 정부청사와 경제기획원 청사를 미국에 의뢰하면서 한국 건축가들의 반발을 받았던 전례가 있었지만 최근에 경우는 세계적으로 가장 새로운 건축을 세우므로써 기업의 “이미지”로 부각시키겠다는 시도로서 미국의 건축가 “Cesar Pelli”의 대교빌딩 “Weltom Becket”의 삼성빌딩, “S. O. M”의 럭키금성빌딩, “H. O. K”의 국제상사사옥 등은 서울도시경관에 한몫을 크게 차지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게 되며 기업인들의 마음 속에는 외국설계작품에 기대와 신뢰를 크게 걸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기업 자체의 능력으로 설계에서 건설까지의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경향도 크게 두드러졌다.

몇몇 대기업들은 재력과 인력수용능력의 우위에 있어서 더욱 더 그 위력은 도시 재개발지역의 토지 수용은 물론 계획, 설계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6·25동란의 잿더미 위에서 시작하여 오늘의 엄청난 변화를 낳았던 “서울”은 앞으로 더욱 큰 변화를 보여 줄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알찬 변화에 확신을 갖는다.

단 한 가지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고장이어야 하고 아름다운 한국어어야 한다는 것이다.

### 웃이 날개인 집

1983년에 발행한 건축전시회 작품집을 펼쳐 보고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고 마음 속으로 놀라움과 기이함을 느낀 것이 있다.

작품 대부분이 벽돌조로서 다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 추세가 어느 만큼 맹렬한가 하는 것은 요즈음 벽돌 수요가 폭등하여 품귀 현상이 일어나 공사 과정에 어려움과 타격을 크게 주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가?

벽돌을 다루는 표현과 연출이 한 건축가가 개발한 표기의 미학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무분별하게 함창을 하듯이 입놀림이 같은 작품 경향은 마치 정부시책에서 시도하려는 표준도 보급의 호응처럼 전국적 평준화를 달성하려는 것인지?

대체로 건축을 보는 우리사회 일반인들의 관점이 두 가지로 다른 점을 볼 때가 있다.

공통적으로 공간 개념의 의미보다 건축마감재에 대해서 관심이 강하다는 점이다.

벽돌집, 브룩집, 돌집, 대리석집 등 세속적으로 재료값의 차이를 비교해서 대리석은 좋은 집, 브룩은 나쁜집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너무나 일반화 되어 있다.

이는 옛부터 있었던 사실은 아닌 것이 우리 고유의 집은 목조 단일품목에 기와 아니면 초가가 있을 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다시 6·25동란으로 거슬러 올라 당시를 회상하면, 피난살이 판자집 신세 안져본 사람은, 경상도 사람을 빼고 거의 없었을 것이다.

미군 맥주 깡통을 펴서 만든 기발한 함석재는 지금 생각해도 멋진 창작품이었다. 이것으로 서울 을지로 거리의 모든 상가를 가설건물로 형성하였던 수복 당시의 특수한 모습은 그 유래가 없었을 것이다. 그 뒤 안정을 되찾으면서 시멘트 벽돌, 브룩조 건물로 대체되면서 외장은 타일 일색을 이루고 지금에 와서는 콘크리트구조와 시멘트벽돌조는 누구나

손쉽게 시공할 수 있는 구조처럼 일반화 되기에 이르렀고, 타일·알미늄의 시대를 거쳐 최근에 P.C 콘크리트판제가 고층빌딩의 제복과 같이 P.C 판 일색이 되어버릴 추세가 농후하다.

두번째로는 값싼 석유연료의 혜택으로 냉난방의 적정 실내공간 환경을 유지하는 50년대에는, 태양 빛을 피할 수 있도록 루바의 설치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그 용도가 지나쳐 루바는 마치 외장 장식재처럼 과용되어 가고 그 구성의 조화에 따라 아름다운 현대건축을 창작한다고 생각했으며 심지어 현상설계의 응모작품의 경우, 당선작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비법으로 오용되는 시절이 있었으나 요즈음엔 태양열을 최대한 이용해야 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온통 유리로 뒤덮을 만큼 유리 공간이 필요하여졌다. 유리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유리의 수요가 높아지자 은색·금색으로 착색을 하여 유리집도 더욱 새롭게 느껴지는 개량재료가 끊임없이 개발되어 번쩍이고 반사되는 색다른 도시 분위기에 현기증마저 일으킨다.

일본계 미국건축가 “야마자키 미노루”가 샌트 루이스 공항 등 출세작품을 내놓고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과로·과음으로 위를 2/3나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어려움에 이른적이 있었는데 그가 회복하기 위해, 또 새로운 영감을 되살리기 위해서 세계여행길에 오른 길에 모국 일본을 처음 방문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자연 속에 고요하게 조화됨을 보고 현대 서구도시가 소란과 혼란으로 가득 했음을 크게 느끼고 “건축은 인간을 위압하기 보다 온화하게 포용해야 한다는 진실을 얻었다”는 일화를 기억한다.

### 건물의 용도

시내에서 거북이 걸음의 차를 몰고 다니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이 생겨난다. 운전엔 신경을 쓰다 보니 길 거리를 두리번 거리며 다니는 재미가 없어졌다. 발등을 밟을 만큼 사람들이 길을 메워다니지만 그 중에 혼을 뺏을 만큼 멋진 여자라도 눈요기 하

는 묘미와 집들의 생김새를 쳐다보는 맛이란 제법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다.

시선을 끄는 미인이라고 입술이 하나 더 많은 것도 아닌데 매력을 풍긴다는 것도 연구해 볼 일이다.

그와 반대로 너무 못생긴 것과 마주치면 기분도 나쁘지만 요즈음 갑자기 국제행사를 자주 갖어서인지 “코리언”의 인상이 도매금으로 묶여 불리 해질까 괜한 염려가 느껴진다.

그렇다고 못난 골격도 조상께서 물려 받은 것인데 이왕이면 밝고 건강한 개성이라도 개발 한다면, 징그럽게 생긴 ET도 만인의 사랑을 받을 세월이니 조금도 염려할 것이 못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다시 미소가 떠오른다.

건물을 보며 거리를 걸으면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는 재미가 지나치는 미인을 눈요기 하는 만큼 건강에 보탬을 느낀다. 지구상에는 공기가 있고 중력이 있어 모든 사물은 나름대로 뜻이 있어 서로 균형있게 잘들어 어울려 있다.

건축가들의 생각 들은 모두 독창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내면서도, 언제나 지붕 있고 창을 뚫어 내고 문을 만드는 것을 누구나 되풀이 한다.

그러다 보니 지구상의 집들은 모두 사람과 ET가 다른 것처럼 사람 용도에 속하는 모습과 같은 족속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건축이란 세계는 언제나 사람들과 친숙한 인간관계처럼 건축의 용도에 관해서 별로 어려움 없이 마음이 끌리거나 매혹 당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한다.

얼굴이 제 멋대로 생겼으나 心相이 멋있다는데 공감할 할 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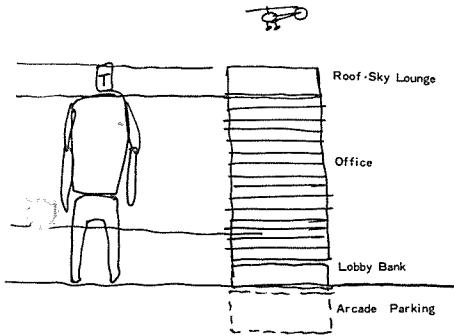
외모만 의젓하거나 빼어나도 믿지 못할 인간이 있듯이 속마음이 텅 빈 건물은 더욱 우리 주변에 많지 않은가?

내부공간에서 내다보는 기쁨과 권리를 못갖는 경우라면 우리 조상보다 훨씬 불행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서울 도심의 경관을 주름잡는 대형 건물들은 대부분 재력의 규모가 큰 기업들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돈을 들일 만큼 들여 놓고 불이 났다하면 어이없는 화를 면하지 못하

는 이 마당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용모도 다양각색인 것은 작품이라고 보는 흥미를 일으키지만 그 밖에 멋대로 쌓아 올린 공상스러운 구두쇠형의 용모들이 행인들의 마음을 즐겁지 않게 하는 환경이 문제라고 본다.



도심의 금싸라기 땅에 빌딩을 짓는데 남이야 보던 말던 자신들의 형편만을 고려하면 그만이라는 배짱이 두둑한 건물이 지나치게 많다. 적어도 10층 규모의 높이가 서울 하늘에 솟아 오르는데 도로에 면한 한면만 정성을 들여 화장을 한 괴물도 지나치게 많아 도시경관은 마치 웃음도 안나오는 코메디를 구경하는 무대 같다고나 할까, 사람들도 옷이 날개라고 옛부터 의관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었거늘 하물며 용모도 기형으로 망쳐 놓고 먹다 버린듯한 빌딩들이 더 이상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 劃一化와 技術

19세기 근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똑같은 물건을 빨리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데 있다.

근대화란 모든 사람들에게 주택 또는 일할 장소와 공간을 갖는 권리를 해결하여 주었다. 그랬더니 다음에는 질적인 내용의 불만이 생겨서 이를 또한 평준화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저마다 인간으로 한번 태어난 기회에 기분나는 욕구를 만족하려는 개별적 취향을 중요시 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들이 겪은 근대화 과정의 양상인데, 요즘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와 흡사한 과정을 느끼는 점이 많아졌다.

빠르고, 쉽고, 싸게……

規格化·標準化의 量産体制의 연구·개발은 작은 부품에서부터 크게는 마을 도시 전체를 규격화 하려는 계획과 시도들이 마침내는 지구촌이 온통 획일화로 혼용 될 것같은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

요즈음 빌딩계획 설계를 하려면 P.C 콘크리트의 모듈과 몰딩제작의 한계를 무시하고는 고층빌딩의 입면을 완성할 수 없을 만큼 부품제조의 정보자료가 없이는 계획을 할 수 없을 만큼 조립 제품 이용이 일반화 된 경향을 많이 본다. 심지어 인간의 생활의 행동이나 필요한 공간도 P.C 제작 능력의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타협해야만 하게 되고 이와 협조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이점을 서로 갖게 된다. 때로는 건축가가 환경과 공간의 개발을 위한 연구마저 게을리 하고 간편하게 조립 제작 견본을 재탕하는 타성에 빠질 우려가 생긴다.

또 다시 을지리가 강릉 함석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외국사람이 Toilet Street 라고 평을 했던 타일시대를 거쳐 이제부터 판박이 P.C를 그대로 준비하게 걸어 놓는 시대로 전환하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해서 표면적 인상이 뉴욕이나 도쿄의 변화가로 비교되지는 않을 것이다. 악기를 연주하면 소리를 듣게 된다. 소리가 음악이 되려면 악기는 연주자에게 신체의 하나로 동화되었을 때 비로소 살아난다.

악기를 만지지 않는 음악가와 같은 건축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울거리는 유행의 한 순간을 반영했던 재료전시의 주기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건축가이며 사상가인 Buckminster Fuller 박사는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두뇌에서 개발되지만 이것이 情과 魂이 담기지 않고 악인에게 넘어가면 흥기가 되어 불행을 초래하지만 그렇지 않고 옹기 활용되면 인류에게 행복된 생존의 특전을 베풀어 준다고 말했다.

오염되는 환경과 핵무기의 공포를 막아내야 하고 세계 평화를 이룩해야 하는 문제에 까지 열의를 쏟은 위인이었다.

### 大型化 時代 高層化 時代

세상에 태어나 건축가가 되어서 가장 큰 욕망을 이룩한다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설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63층 대한생명 초고층 타워의 설계자 박 춘명씨가 그 영예를 갖은 셈이다.

역시 초고층의 세계 정상은 미국에 있다. 미국의 건축가 “야마자끼”가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 높이를 능가한 뉴욕 무역회관을 설계하여 한때 “기네스”에 기록되었으나(?) 곧 시카고의 Sears Tower 초고층을 설계한 S. O. M.에게 최고층 설계자의 명성을 빼앗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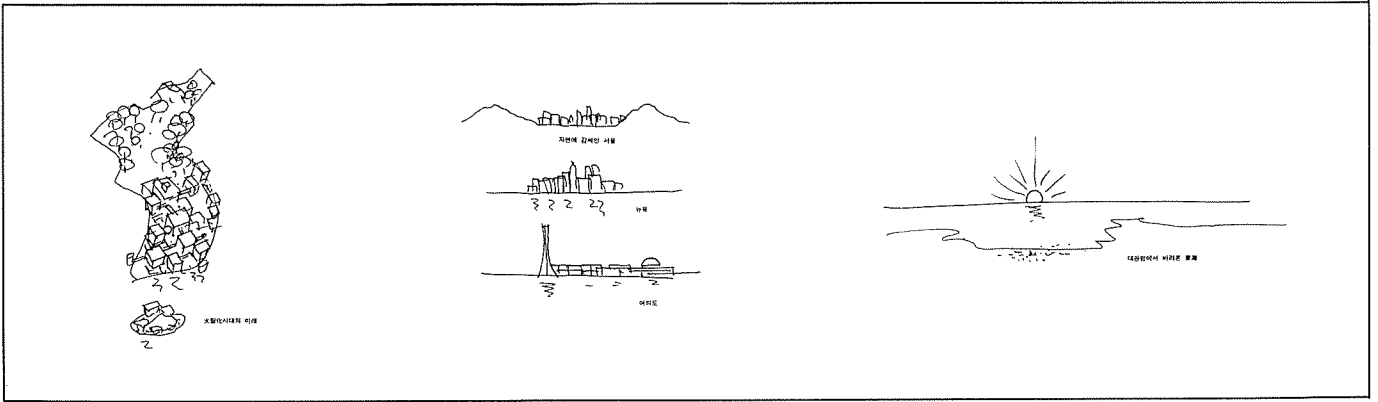
F. L. Wright가 꿈꾸던 1마일 타워는 그의 욕망을 치료하는 스트레스 해소제라고나 할까. 하늘로 올라가는 경쟁을 한국에서도 결코 관심밖이랄 수는 없는 경제수준과 국력으로 신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종래 건축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재래의 기량과 자신을 갖고 계획과 설계에 참여하려고 해도 투자자들이 한국의 건축가들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육성하려 하지도 않는 사태만 두터워져 갈 우려가 있다.

1930년대 미국에서도 대형화되어가는 건축규모를 해결하는 역할은 기술사들이 도맡아 공항·공장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소화해내고 건축사는 작은 프로젝트를 만지는 추세가 되자 건축사무소도 대형화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지금의 S.O.M이 생겨난 것도 당시 기술사 “메릴”을 규합하여 본격적인 종합설계체제 활동을 펼친 끝에 오늘과 같은 실적을 남겼다.

더구나 우리의 상황은 대기업이 건설 설계용역 능력까지 모두 수용함으로써 건축가를 경시하는 풍조까지 볼 수 있을 만큼 해외 건설참여에서 세계 각국의 설계자료와 기술정보를 체험으로 익힌 경험이, 곧 종래 건축가들의 직분과 역할의 사회적 영역을 침해할 만큼 한국 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건축은 언제나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자재에 힘입어 대형화·고층화 하는데 선진국·후진국의



차별이 따로 없을 만큼 지구촌의 어느 곳이나 새로운 건축은 펼쳐지고 있다.

그렇지만 건축가는 언제나 인간의 행복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환경과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과 목표를 항상 밝혀 나가야 할 역할이라는 것을 사회가 착각하지 않도록 건축계는 시대에 항상 앞서서 이들을 계몽하고 미래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여 건축가가 일단 앞장서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규모가 대형화로 커지거나 고층으로 치솟는 크기와 높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체로 압도 당하고 있거나 집단으로 공동생활을 균형있게 담을 수 있는 척도 감각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는 역사적으로나 주변환경에서 그러한 큰 척도 감각을 체험으로 익혀본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밀려오는 대규모의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나가야 한다.

무한대를 느낄만큼 곧바로 뻗은 일직선의 형태를 직접보고 감상해 본 체험으로는, 대관령 넘어서는 순간 동해바다 수평선을 바라보고 압도되었던 적 이외는 아무 것도 없었다. 고속도로도 꾸불꾸불, 시내 도로도 100m 가다 신호등이 가로 막고 대체로 조밀하고 복잡하다는 느낌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높은 곳을 오를 때도 비스듬이 생긴 비탈 길이면 『죽』을 마시듯 얼마든지 한없이 오르는데,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체험은 별로 우리 역사 속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樓閣이 있기는 있어도 가파른 사다리와 다름 없는 계단뿐이지 2, 3층 중층건물에서 일상생활을 했다는 얘기를 못들어 보았다.

그래서 오르내리는 장소를 멋지게 사랑 받는 곳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체질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높은 건물이 하늘과 만닿는 지붕을 쳐다보면 마치 머리감지 않은 미친사람 산발같은 집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지 파라펫트에 리봉이라도 장식하려는지 요즈음 기와를 둘러치는 처방을 많이 보게 된다.

롯데호텔로 밀려서 사라져버린 일제시대 帝冠樣式의 전형인 반도호텔의 모습이 기억에 떠오른다.

왜 요즈음 반도호텔의 망령이 되살아 나는 것일까?

### 한국인이 건축에서 얻는 것

지구상에 건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상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우주의 혹성처럼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지구상의 여러 지역에 따라 인간이 만들어 온 건축이라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필요와 생각들을 담고 있다.

나는 세계의 건축을 돌아보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마치 그 건축물이 나에게 말하기를 『어서 돌아가서 너희가 살아나갈 문제들이나 고민하고 열심히 해결이나 하라』는 충고의 뜻으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국제주의 현대건축마저도 그 지역 그들에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도 그들 상황에서 필연적인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나에게 가장 어려웠던 건축계획 구상을 체험한 것은 중동·아프리카의 주거건축이었는데, 우리와 너무나 다

른 회교종교의 전통과 생태를 이해하는데 거의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야 하는 결론을 갖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건축을 평가하는데 외국 건축가의 결정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은데 이를 바꾸어 생각하면 한국인은 국제 감각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 체질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인가?

따라서 한국에는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美의식의 가치기준도 무한한 범위의 눈금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한국』을 생각하는 본질적인 求心은 어떤 양상으로 있을까.

다음과 같이 공상도 해 보았다.

건축을 보는 마음의 적성 반응으로 보면 순수 한국인이 있고 한국인이면서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있는 외국인인 것이 있는가 하면 외국인인데 마음은 한국인이며 더욱 재미있는 한국인상은 외국에 거주하면서 더욱 한국의 농도가 짙은 한국인도 볼 수 있는 다양한 한국인상이 생겨났다.

이 다양한 한국인들이 건축에 관해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기능적이어야 한다. 전통적이어야 한다. 미래적이고 창조적이어야 한다. 상징적이어야 한다. ....

그들이 아무리 주장과 요구와 비평을 몰아 붙여도 건축의 실체는 건축가의 손에 의해서 출산된다.

좀더 건축가는 그들에게 미래를 설득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보여 주면 그들의 시끄러움은 노래로 들려지지 않겠는가?